

제목: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기획의도

반드시 피눈물나게 열심히 해서 대단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강요 받는 학생(입시생)들의 걱정을 덜어내주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이 웹툰을 읽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줄거리

가: 이야기는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다. 성격 안 좋고 질 나쁜 아이들과 몰려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한 주인공 성가온. 그 소문은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에 사회성도 좋아 선생님들께 예뻐 받는 이른바 범생이인 한다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종례시간, 학교 뒤편에서 자꾸 담배꽂초가 발견된다는 공지를 들은 다해. 자기도 모르게 그 소문의 여자아이를 떠올리곤 그런 애는 자신과 절대 엮일 일 없을 거라며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다해는 학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가온을 마주친다. 다해는 애써 모른척 하려 했지만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자리도 붙어 앉게 되고 스물퉁을 하다보니 학교 뒤편에서 발견된 담배꽂초의 주인은 가온이 아니라는걸 알게 된다. 말을 터보니 딱히 그렇게 성격이 안좋은편은 아니라는것, 질 나쁜 아이들.. 이라기 보단 그냥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끼리 말이 통해서 친구가 된 거 뿐이라는 것, 등등. 가온도 다해에 대한 여러가지(찐따범생이이미지) 오해를 풀고 조금 친해지는 계기가 된다.

승: 학원에서 뿐만 아니라 점점 학교에서도 친분을 드러내고 편하게 수다도 떨게 된 가온과 다해. 그런 둘을 선생님들은 좋게 보지 않는다. 곧 시험 기간인데 괜히 둘이 노닥거리다 다해의 성적에 영향이라도 끼치는거 아니냐며 저들끼리 수다 떠는 걸 들은 다해와 가온. 다해는 조금 열 받아 하지만 정작 본인인 가온은 아무렇지 않아한다. 다해는 가온이 생각보다 괜찮은 애라는 걸 선생님들께 알리기 위해 학원에서 가온을 열심히 도와주고 주말엔 도서관에 데리고가 공부 시키려 한다. 가온은 이런 다해의 행동에 조금 지쳤고 왜 이러는지는 알겠으나, 안 그래도 된다면 짜증을 내버린다. 다해는 성적이 오르면 부모님도 선

쌤님도 기뻐하실거 라며 가운을 설득해보지만 그 말에 더 열이 받은 가운은 "니나 그렇게 많이 살아" 라고 화를 내고 집에 가버린다.

조금 어색해진 채로 시험기간을 보내고 찾아온 2학년 종업식 . 가운은 그 날 그런식으로 격하게 말한거 미안했다며 사과한다. 다해는 여전히 그 날 가운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전혀 모르지만 가운이 나쁜애는 아니란걸 알기에 자신도 미안했다며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낸다.

전: 방학 중 어느날, 가운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담임선생님께 받게 된다. 가운과 연락이 닿은 다해는 가운과 연락이 났다는걸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운을 만난다. 가운은 다해에게 가출한 이유, 부모님과 사이가 안좋은 이유를 털어놓는다. 하기 싫은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좋은 대학 못 가도 인생 안 망한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죽는것처럼 구는 사회가 이상한거다.. 등등.... 속 얘기를 털어놓자 다해는

"그렇게 말해도.... 결국 하기 싫으니까 안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잖아.."

라며 가운을 타이르려 한다. 그 말에 가운은 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도 안해도 되는거고,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도 해도 된다고 말한다. "그게 나쁜건 아니잖아?" 다해는 조금 가슴이 먹먹해지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런 기분을 무시한 채 가운에게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라고 한다. 가운은 다해에게 털어놓으니 조금 후련해졌다고 말했다고 하고 사건은 생각보다 간단히 일단락된다.

결: 3학년이 되고 같은 반에 배정받은 가운과 다해. 이전 보다 더 뽀뽀해진 학교 분위기와 학원 스케줄, 노력은 하는데 더이상 오르지 않는 성적. 주변에선 다해를 재촉하고 결국 다해는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다. 빠르게 다가오는 시험기간. 그러나 다해는 어째서인지 며칠째 학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어느 주말. 다해의 집에 찾아간 가운. 다해는 조금 지친 얼굴로 가운을 맞는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운다. 가운은 다해에게 "왜 니가 잘해야 하는데? 우리 나이 대 애들한테는 말이야, 그냥 하기만 해도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한다고." 이라며 본인 딴 엔 위로인 말을 건넨다. 다해는 가운의 말이 위로가 됐는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다.

그날 저녁 다해는 부모님께 사실을 그림이 하고 싶었다면서 묵혀뒀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는다. 부모님께 한 소리 들을 각오로 한 말들이었지만 다해의 부모님은 오히려 다해를 안아주며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다해는 일본으로 유학

가온은 프리랜서 (작곡/영상편집 등)로 일하며 하고 싶은 걸 하며 자유롭게 잘 살게 된다.

등장인물

성가온

성별: 여

나이: 18세

직업: 고등학생

성격: 낙관적 허무주의/되면 곳. 안되면 유감/반항아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한다. 자신에게 적대적이면 똑같이 적대적으로 대하고 친절하면 자신도 친절해짐. 선생님들 사이에서 성격이 나쁘다고 소문 난 이유가 이런 양면성 때문이다.

배경: 부모님 두 분과 같이 살고 있다. 직장인인 오빠는 출가해 따로 사는 중. 어렸을 때부터 학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부모님 때문에 공부엔 질려버렸다.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 분야는 전부 재능이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다.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사촌 언니가 유일한 숨통이었지만, 사촌언니의 집안도 만만치 않게 학벌에 집착하는 편이라 언니는 버티지 못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자살해버렸다. 집안 사람들은 죽은 언니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흥분다. 가족을 포함한 어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목표: 내 맘대로 잘 살기

한다해

성별: 여

나이: 18세

직업: 고등학생

성격: 이상적 현실주의/모범생

착하다.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 눈치가 조금 없다. 본인은 눈치가 좋다고 생각한다. 기대를 받으면 거기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 들다는 소리 못하고 애써 견딘다.

배경: 부모님, 초등학생 남동생과 살고 있다. 사촌들이 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부모님께 받는 기대가 크다. 이런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만 그런 건 직업으로 삼을 수 없다며 번듯한 직장을 구하고 취미로 해도 나쁠 거 없다고 생각... 한다.

목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성가운

18세

낙관적 어무주의 / 되면 곳 안되면 유감 / 반항아

하고 싶은건 하고 하기 싫은건 안한다. 자신에게 적대적이면 똑같이 적대적으로 대하고

친절하면 자신도 친절해짐. 선생님들 사이에서 성격이 나쁘다고 소문난 이유가 이런 양면성 때문이다.



한다해

18세

이상적 현실주의 / 모범생

착하다. 어른들에게 예의바르고 참아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편. 눈치가 조금 없다. 본인은 눈치가 좋다고 생각한다.

가대를 받으면 거기에 보답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 못하고 애써 견딘다.

